

「망자」에 나타난 파티의 양상과 그 함의 -미하일 바흐찐의 “카니발” 개념을 중심으로*

김 철 수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가 식민지 조국의 마비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고발함으로써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Letters I 134)을 쓰겠다는 의도로 집필했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마지막 장으로 수록된 「망자」(“The Dead”)는 그 구조와 주제 면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시드니 페쉬바흐(Sidney Feshbach)와 윌리엄 허먼(William Herman)은 이 작품이 “본질적으로 나머지 단편들과는 다르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환기시키며, 또한 다른 작품들과의 분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클라이맥스의 역할도 가능하다”(746)는 주장으로 전체 작품 속에서 이 마지막 단편이 차지하는 독특한 성격을 설명한다.

그와 더불어 폴 배럴스키(Paul Barolsky) 역시 상실과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의 감정들로 엮어진 『더블린 사람들』의 열 네 편의 이야기들은 「망자」라는 깊은

* 이 논문은 2014 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통렬함을 지닌 스토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편에는 작품집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후회의 감정이 응축되어,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주장한다(519-20). 또한 로스 챔버스(Ross Chambers)는 각각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이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와 마이클 퓨리(Michael Fury)의 대립관계가 연례적인 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소음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97-119).

한 편의 독립적인 단편 소설로서, 그리고 전체 작품집의 종장(coda)으로서의 외형적 구조 속에 3 대에 걸친 더블린의 우울한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단편은 중심인물인 게이브리엘의 나이 든 두 이모인 모컨(Morkan) 자매에 의해서 주도되는 연례적인 파티를 모티프로 하여 과거와 전통에 대한 향수, ‘마비’라는 작품 전체의 주제를 연상시키는 반복성, 그리고 죽음 등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주제들이 작품의 전면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적인 주제의 이면에는 식민지 아일랜드와 제국주의 영국에 대한 정치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세대와 성별 그리고 계급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의 구조가 격렬한 대화적 긴장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파티라는 표층 구조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다성적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개별적 ‘타자들’의 공격에 의해 소위 ‘주체세력’의 견고한 자기중심적 정체성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이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주의와 카니발(Carnival)의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본 작품 속의 연례 파티의 양상과 등장인물의 내외적인 환경에 드리워진 카니발의 속성이 중심인물의 의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계급과 성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려하고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각각 자신들의 감추었던 목소리를 드러내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파티의 양상 속에서 발견되는 ‘카니발’의 속성은 다양성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직된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타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또 자신의 모습 속에 감춰졌던 타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통렬한 자기인식의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카니발

“인간의 삶 자체가 묻고, 관심 갖고, 반응하고 동의하는 대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전적으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러한 대화에 참여한 다”(Bakhtin *PDP* 293)고 생각한 바흐친은 그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작가에 의해서 객관화되고 다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굴절되어 재현됨으로써 예술적 언어로 변화된다고 주장한다(Bakhtin *DI* 301-2).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하나의 특정한 담론은 지속적인 대화화를 통하여 비종결성이나 개방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을 때에만 그 스스로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주로 문학 작품 속의 다양한 담론들의 형태와 그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 온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은 “비종결성(unfinalizability),” “이어성(異語性)(heteroglossia),” “다성성(polyphony),” 그리고 “카니발(carnival)” 등과 같은 몇 가지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종결성”이란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가 아직 최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된다”(Bakhtin *PDP* 59)라는 그의 신념처럼 어떠한 극단적인 판단도 유보하며 인간이나 사물이나 혹은 사건들의 계속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용어이다.

인종이나 계급, 종교 그리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말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이어성’은 언어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언어적 비종결성’이며, ‘다성성’은 한 작품 내부에 들어있는 많은 목소리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일방적인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작품의 성격을 말한다(Bakhtin *DI* 301-2).

이러한 키워드들과 더불어 대화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의 문제점들』(*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1963)에서 처음 사용하고,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leais and His World* 1965)에서 체계화한 ‘카니발’의 개념이다. 공식적 세계와 비공식적 세계로 이루어진 카니발의 세계에서는 비공식적 세계를 통해 공식적 세계를 조롱하고, 그 두 세계를 하나의 큰 세계로 합병시키면서 “유패한 상대성”을 추구하게 된다(Bakhtin *RHW* 39).

김옥동은 “삶의 구조와 질서를 결정하는 법률과 금지 그리고 제약들이 모두 정지”(Bakhtin *PDP* 122)되는 상태라고 정의된 바흐친의 카니발을 “자유와 평등, 집단과 민중,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의 세계”(김옥동 240-42)라고 정리하고 그 속에서 우주의 중심을 하늘에 두었던 중세의 세계관을 전복한 르네상스적 수평의 세계관을 읽고 있다(김옥동 253).

또한 바흐친은 이러한 대화적 세계관을 추구해 가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 뒤에 감춰진 예술적 원리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작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학 담론의 주체로서의 작가는 완전한 대화적 세계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작가 자신과 사상과 의식과 행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작중 인물 사이의 긴장을 조성하게 되며, 그 결과로 융합되지 않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게 되어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무수한 이데올로기적 언어들이 구성된다(Bakhtin *PDP* 13).

「망자」의 주요 모티프가 되고 있는 모컨 자매의 연례 파티의 양상은 위에서 요약한 바흐친의 카니발 개념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외관상이 파티에는 각종 육류와 과일과 야채 및 주류 등 엄청난 양의 음식과 흥겨운 음악 등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세대와 계급, 성별, 그리고 개인적, 정치적 성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주체 세력들에 대한 타자 세력들에게 다양한 전복의 시도가 존재한다.

게다가 기성세대는 신세대에게, 주인들은 하녀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친영과는 민족주의자에게, 그리고 산 자는 죽은 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치열한 대화적 긴장은 마침내 견고한 이기주의의 아성에 갇혀 있던 한 개인의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의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뒤덮어 주는 눈의 이미지와 함께 하나의 카니발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의 뒤편에 “조국의 도덕사”를 의도했던 작가의 치밀한 교향(orchestration)의 기술이 도사리고 있다.

III. 「망자」의 파티와 그 카니발적 함의

“관리인의 딸 릴리는 문자 그대로 발바닥이 닳을 판이었다”(D 175)로 시작되는 내레이션은 이 파티에 대한 카니발적 해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블린의 중산층에 의해서 개최되고 향유되는 “음악과 연설, 웃음과 박수 등의 요소들”(Chambers 98)로 이루어진 모건 자매의 파티에 대한 묘사가 그 화려한 외형이나 주최자 또는 내외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그 행사의 밑바닥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을 담당하는 하녀의 동선에 대한 묘사로 시작됨으로써 이 작품의 무게중심이 처음부터 상대적인 하층계급에게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전복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 집안의 연례 무도회, 그건 언제나 큰 잔치였다. 이 집안을 아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치에 왔는데, 거기에는 이 집안의 친척과 오랜 친구들, 줄리아의 성가대원들, 나이가 웬만큼 찬 케이트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메리 제인의 제자까지도 몇몇 끼어 있었다. 잔치가 어설프게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잔치는 긴긴 세월이 걸쳐 화려하고 격조 있게 치러졌다. (D 175)

이 파티는 첫째,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규칙적인 행사이며, 둘째로는 일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이고 셋째로는 하룻밤 동안 열리는 성대한 행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 파티는 그 대 주제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환대의 정신”(D 202)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화려한 표면의 이면에 수많은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표면의 화려함과 이면의 음울함이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단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바흐젠이 말한 대화의 양상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이 작품은 작품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군상들이 모이는 파티라는 집단적 상황에서 게이브리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수태고지로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게이브리엘 콘로이)(눅 1: 226-8)와 심판을 통해 그 종말을 알리는 미카엘 천사(마이클 퓨리)(단 12: 1)와 기성세대이자 더블린의 부유한 중산 계층인 모건 자매

를 비롯한 파티의 참석자들과 그들을 시중들며 말대꾸로 대드는 하녀 릴리,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모들의 무식함을 조롱하는 친영과 남성인 게이브리얼과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인 아이버스 양, 다양한 방식으로 파티에 참여하여 즐기는 다른 가족들과 그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프레디 말린스(Freddy Malins), 더 나아가서는 자기중심적 아집에 갇혀서 다양한 타자들의 공격에 좌불안석 하다가 결국에는 주체성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게이브리얼 자신 내부의 두 개의 자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립의 구조들이 끊임없는 ‘말대꾸’를 통한 대화화를 이어가고 있다.

게이브리얼이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애, 릴리, 너 아직 학교에 다니니?”

릴리가 대답했다.

“어머, 아니요. 학교 졸업한 지 벌써 일 년도 더 된걸요.”

게이브리얼이 쾌활하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조만간 좋은 날 결혼식장에서 신랑 총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 응?”

릴리는 어깨 너머로 게이브리얼을 힐끗 돌아보고는 매우 분개하는 어조로 말했다.

“요즘 총각들은 말만 번드르르하고 여자한테서 뭐가 우려낼 생각만 하는걸요.”

게이브리얼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라도 드는 듯 얼굴을 붉히고는 릴리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골로시를 팽개쳐 벗고 에나멜 구두를 머플러로 세차게 탈탈 털었다.

게이브리얼은 살지고 키가 훗칠한 사내였다. 뺨에 어린 홍조가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희미하게 불그죽죽한 반점 두어 개로 흩어졌고, 말끔하게 수염을 민 얼굴에서는 반질반질한 안경알과 밝은 색 금테가 쉴 새 없이 번뜩이면서 섬세하고 예민한 눈을 가렸다. 번들거리는 검은 머리는 앞가르마를 타고, 긴 곡선을 그리며 귀 뒤까지 빗졌고 모자 자국 아래로는 살짝 곱슬곱슬했다. (D 178)

자신을 어린 아이 취급하는 게이브리얼에 대하여 “그녀 자신 만의 성인 여성의 목소리로”(Cheng 137) 대응하는 릴리의 말대꾸는 권위에 대한 저항, 남성에 대한 저항 그리고 관습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게이브리얼로 하여금 “실수를 했다고”(D 178) 느끼게 할 정도로 그의 정체성의 안정감을 침해한다.

게이브리얼은 관례적인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릴리가 자신의 문화적 권

위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정체성은 릴리처럼 철저히 주변적인 사람, 즉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미혼 여성이며, 하층 노동자인 사람마저도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희박하기 그지없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하층 노동자에 의한 공격의 모습은 바흐쥰이 말한 카니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에게 이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의 안경마저도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그의 “섬세하고 예민한 눈을 가리는”(D 178) 맹목의 도구로 표현되고 만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하녀로부터 당한 공격에 당황한 게이브리엘은 애써 거절하는 릴리에게 “크리스마스 명절이잖니? 그냥... 약소하지만...”(D 178)이라고 말하며 동전을 쥐어줌으로써 그 어색함을 모면하고자 시도하는데, 이러한 그의 노력에 대하여 첵은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상대적 부와 권력의 힘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한다”(Cheng 137-38)고 설명한다.

사실 게이브리엘은 그의 이모들에게는 이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콘이자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릴리로부터의 첫 번째 공격을 시작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그의 정체성은 외형적으로만 화려하고 소란스러우며 호의적인 파티의 양상과 더불어 매우 불안정한 평온 속에서 겨우 유지된다. “축 처진 눈꺼풀과 헝클어지고 술 적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줄린 인상”(D 184)을 가진 프레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참석자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로 연설을 준비하는 게이브리엘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곡을 연주하는 메리 제인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이 파티에 불협화음을 제공하는 문화적 허장성세로 가득한 엘리트주의의 표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느껴질 때마다 게이브리엘의 의식은 자주 과거의 기억이나 현실과 관련이 없는 상상 속으로 도피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모 맥의 거실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들의 과거에 대한 상념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자신의 아내를 “영악한 춘닭”(D 187)이라고 부르며 멸시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귀를 불편하게 했던 메리 제인의 연주가 끝나고 춤추는 시간이 되어 그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즈음에 다시 아이버스 양에 의한 두 번째 공격이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둘이서 자리를 잡자 아이버스가 불쑥 말을 꺼냈다.

“선생님께 따질 일이 있어요.”

게이브리엘이 말했다.

“저한테요?”

여자는 목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게이브리엘이 무게를 잡는 여자의 태도에 웃음을 띠고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아이버스가 게이브리엘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G. C.가 누구죠?”

게이브리엘이 낯을 붉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처럼 막 이마를 찌푸리려는데, 여자가 퉁명스레 말했다.

“어머 시치미 떼시기는! 선생님이 《더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에 기고하시는 걸 알아냈는데. 어때요,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게이브리엘은 눈을 깜박이고 웃음을 띠려 애쓰며 물었다.

“내가 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죠?”

“저기, 저는 선생님이 부끄럽거든요.” 아이버스가 거침없이 말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신문에 글을 쓰시다니 말이예요. 선생님이 친영파인 줄은 몰랐어요.”

(D 187-88)

“옷깃 앞에 박힌 커다란 브로치에 새겨진 아일랜드 문장과 명구”(D 187)를 통해 자신이 민족주의자임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이버스 양의 말대꾸는 파티도중에 일어나는 두 번째의 카니발적 공격으로서 다시 한 번 그의 권위적인 문화적 위상을 침해한다. 이번에도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으쓱대면서 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D 188) 할 말을 잃고 당황하며, 비슷한 경력을 공유해 온 친구에게 그저 “계속해서 눈을 깜박거리며 웃음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서평을 쓰는 일이 정치와 상관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D 188)고 얼버무린다.

아란 섬(Aran Isles)으로의 소풍을 제안하는 아이버스 양에게 자신은 유럽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의 땅을 놔두고, 왜 하필 프랑스나 벨기에로 가시려는 거죠?”(D 189)라고 반박한다. 대륙의 언어를 배우고 기분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이버스 양은 모국어인 아일랜드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꾸한다. 여기서 아이버스 양이 제안하는 아란 섬으로의 서부 여행은

“과거 지향적 민족주의와 게일릭어 부흥운동을 의미하는 상징적 여행”(Peak 51)이며, 게이브리엘은 전통을 칭송하는 그의 연설과는 달리 이러한 과거회귀적인 움직임에 반감을 보이며 오히려 유럽 대륙으로의 여행 계획을 강조한다.

계속된 말싸움에 지친 게이브리엘이 “아일랜드어는 제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결국에는 “난 나 자신의 나라가 진저리가 난다”(D 189)고 고향을 친다. 이 장면은 『율리시스』에서 디지(Deasy) 교장에게 “역사는 내가 깨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악몽”(U 2.377)이라고 외치는 스티븐(Stephen Dedalus)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또한 게이브리엘의 귀에 “친영파!”(D 190)라고 조롱하듯 속삭이며 대화를 끝내는 아이버스 양의 말은 텔리마쿠스(Telemachus) 에피소드에서 헤인즈에게 “찬탈자”(U 1.744)라고 분노에 찬 독백을 던지는 스티븐의 모습을 공명시킨다.

아이버스와의 대화 내용을 아내에게 전하던 게이브리엘은 자신이 딱 잘라 거절했던 서부 여행을 “골웨이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D 191)라고 신이 나서 재촉하는 그레타에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구려”(D 191)라고 냉정하게 대꾸함으로써 “그의 가부장적 독선”(Cheng 139)을 보여준다. 대화가 끝난 후 말린스 여사(Mrs. Malins)의 스코틀랜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따분해진 게이브리엘의 의식은 또 다시 그 따분함을 피하기 위해 창밖의 경치를 향하며, 만찬 때 하게 될 연설문을 점검하며 안정을 찾으려 노력한다.

게이브리엘은 노파의 얘기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보니 잠시 후에 할 연설이며 인용에 관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프레디 말린스가 어머니를 찾아 방을 건너오는 것이 보이자, 게이브리엘은 의자를 비워주고 창외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가서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다. 방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뒷방에서는 접시와 나이프 따위가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직 웅덩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춤에 싫증난 듯한 표정으로 몇몇씩 모여서 조용히 담소하고 있었다. 게이브리엘의 따뜻한 손이 떨리면서 차가운 창틀을 두드렸다. 바깥은 얼마나 시원할까! 처음에 강변을 걸다가 그다음에 공원 안을 걸으면 얼마나 상쾌할까! 눈이 나뭇가지 위에도 쌓여 있을 것이고 웰링턴 기념탑 위에는 환한 모자처럼 덮여 있겠지. 만찬 식탁 자리보다야 얼마나 더 상쾌할까! (D 191-92)

자신의 의식을 억압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게이브리엘의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험센 친구의 장난 때문에 웅덩이에 빠진 후 양호실에서 쉬고 있다가 어른들의 정치 싸움을 듣던 어린 스티븐이 자신이 기억하는 첫 번째 성탄절 파티의 장면에 대한 환상으로 자신을 도피시키는 모습과 닮았다(P 27). 그리고 만찬 후 실제 연설 직전에도 게이브리엘은 산란해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불안한 의식으로 바깥 세계를 동경하며 “눈 속에서 불 켜진 창문을 쳐다보며 왈츠 음악을 듣고” “웰링턴 기념탑을 덮고 있는 눈이 하얀 퍼프틴 에이커 별판 위로 서쪽을 향해 반짝이고 있는”(D 202) 바깥 경치를 상상한다.

통통한 갈색 거위 한 마리가 테이블 한 쪽 끝에 놓여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파슬리 잔가지들 깔아 놓은 주름 종이 받침 위에 걸쭉질을 벗겨 내고 빵가루를 흩뿌린 돼지 허벅다리가 정강이에 깔끔한 종이 주름 장식을 두른 채 놓여 있었으며, 그 옆에는 양념한 사태 쇠고기가 놓여 있었다. 양쪽 끝에서 앞 다투는 이 두 개의 주요리 사이에는 곁들이 요리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곁들이 요리란, 빨갛고 노란 사원 모양의 작은 젤리 돌, 불량망제 덩어리와 빨간 잼이 그득한 얇은 접시, 자주색 건포도와 껌질 벗긴 아몬드 덩어리가 담긴, 줄기 모양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잎사귀 모양의 녹색 접시, 이것과 짝을 이루며 단단한 직사각형의 스미르나 무화과를 담고 있는 접시, 채를 친 육두구 나무 열매를 위에 뿌린 커스터드 접시, 금색, 은색 종이에 싸 초콜릿과 사탕이 그득 담긴 작은 단지, 그리고 기다란 셀러리 몇 개를 세워 놓은 유리 화병 등이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피라미드 꼴로 쌓인 오렌지와 아메리칸 파이를 받들고 있는 과일 탁자 위로 호위병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듯 작달막한 구식 세공 유리 그릇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적포도주를, 다른 하나는 거뭇한 셰리를 담고 있었다. 뚜껑이 닫힌 사각형 피아노 위에는 큼지막한 노란색 접시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흑맥주와 에일과 탄산수를 담은 병들이 세 분대를 이루어 각각 일정한 제복에 따라 정렬해 있었는데, 앞의 둘은 갈색과 붉은 색 상표가 달린 검은 색의 분대였고, 그중 작은 세 번째 것은 초록색 견장이 가로질러 달린 하얀색 분대였다. (D 196-97)

게이브리엘이 연설을 하게 될 만찬 식탁에 대한 위의 묘사에서 윈스턴(Greg C. Winston)은 전쟁에 임하여 매복한 군대의 이미지를 읽고 있다. 즉 거위와 햄이 진영을 나누어 대치하고 있고, 술과 물을 담은 병들은 제복을 입은 분대원이나 초병의 모습이며, 다른 요리들은 줄지어 대기하고서 매복 기습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Winston 123). 다른 한 편으로 이 장면은 이 파티의 하이라이트로서 실제 사육제를 떠오르게 하는 물리적 카니발의 매개체

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후 아이버스 양이 파티장을 떠나자 게이브리엘은 더 안전하게 자신이 적어 놓은 연설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릴리와 아이버스 양 등 자의식이 강한 젊은 여자들과의 만남이 가져다주었던 예기치 않았던 당혹감을 잠시 극복한 게이브리엘은 그 파티에 존재감을 부여하는 귀빈으로서 탁자의 머리맡에 “과감하게”(D 197)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는 손님들을 위해서 거위 고기를 자른다. 그의 권위에 대한 더 이상의 도전이 없어지자 그는 전통과 호의에 대한 자신의 연설을 실행한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새 세대, 즉 새 사상과 새 원칙에 자극을 받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진지하고 새 사상에 대해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열성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제가 믿기로는 대체로 순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적이고, 이런 구절을 써도 좋다면, 사상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대로 이 새 세대가 아무리 교육, 아니, 교육의 할아버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 시대의 자산인 인간애, 환대, 다정다감 등의 특질들은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D 203)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전통적 호의는 곧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그리하여 스스로를 “기꺼이 억압당하는”(D 42)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게이브리엘은 아일랜드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교육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신의 권위와 그의 주체성을 가능하게 했던 영국 식민주의의 수혜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민주의의 구조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타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위를 자신을 둘러싼 저급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게이브리엘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인간애와 환대 그리고 다정다감 등의 특질들”(D 203)이라는 전통에 대한 향수는 “잠깐 동안이나마 시끄럽고 번잡한 나날의 일상에서 벗어나고자”(D 204)한다는 일시성을 가진 행사로 결론지어지고,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전통은 그의 조부인 패트릭 모컨(Patrick Morkan)의 말 조니(Johnny)의 이야기를 통해 한갓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

는 자신의 조부가 어느날 공원에서 벌어지는 열병식을 구경하기 위하여 “조니에게 마구를 채우고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긴 모자와 가장 훌륭한 장식 목깃을 착용하시고 의젓한 풍모를 타고 마차를 타고”(D 207) 저택을 출발하였으나, 윌리엄 왕의 동상(King Billy's statue)에 이르러 그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말의 흉내를 내며 현관을 빙빙 돌면서 그 말을 조롱한다. 요컨대 현대 유럽의 최신 유행인 골로시를 신고서, 조니의 흉내를 내며 현관을 빙빙 돌면서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게이브리엘의 모습은, 여태 그가 칭송해 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통을 폭소와 함께 조롱함으로써 카니발적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똑 같은 초대 손님들, 똑 같은 메뉴, 똑 같은 유흥, 똑 같은 농담과 일화들과 연설 가운데서, 자그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평범하게 치러진 적이 없이”(D 175) 해마다 반복되는 모컨 자매의 파티에서 강조되는 전통은 “관에서 잠자는”(D 201) 수도승들의 이야기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나 “도덕적 마비나 문화적 반신불수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데만 성공하는” “단순한 과거의 반복으로 해석됨으로써”(Chambers 100) 자신의 불안정한 현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과거의 향수를 이용한 게이브리엘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귀가하는 손님들을 위한 마차를 잡는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이야기는 파티라는 “사교적 환경”으로부터 게이브리엘의 의식이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Eggers 23).

게이브리엘은 현관의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목소리가 노래하는 가락을 식별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아내의 태도에 기쁨과 신비로움이 어린 것이 마치 무엇인가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어둠 속 계단에 서서 아련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자가 무엇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자신이 화가라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내 모습을 그려 보련만. 아내의 파란색 펠트 모자는 어둠에 대비하여 머리의 청동색을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할 것이고 이마에 댄 검은색 긴 천은 밝은 천을 돋보이게 하리라. 자신이 만일 화가라면 그 그림을 「아련한 음악,이라 이름 붙이리라. (D 210)

자신의 쉰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던 바텔 다시 씨(Mr. Bartel

D'Arcy)라는 지역의 테너 가수가 손님들이 떠나려는 순간에 노래를 부르고 있고, 게이브리엘의 아내는 그 노래를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 노래는 “오림의 아가씨”(The Lass of Aughrim)로서 그레타의 죽은 연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 노래가 들려오는 동안 게이브리엘은 그 음악과 그것의 메시지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 음악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음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인 그의 아내 그레타이다. 물론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에 심취하게 된 것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지식이나 관심 혹은 취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 가장 가슴 아픈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이었겠지만, 게이브리엘의 눈에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오던 사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아내의 모습이 비치게 된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촌답”이라고 놀림이나 받던 그의 아내가 마치 귀에 들려오는 음악을 깨닫고 그것에 매료되어 다시 그것과 일체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쁨과 신비로움이 어린 것이 마치 무엇인가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D 210)처럼 보일 정도의 감동을 주게 된다. 그리고 비록 상상속에서나마 바로 그의 눈앞에서 “아련한 음악”(D 210)이라는 미술 작품의 테마로 변모하게 되는 그레타의 모습은 그동안 그가 그녀에게 취해오던 남성적 권위의 태도를 붕괴시키는 또 하나의 전복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모 집을 나온 후 게이브리엘은 마차를 잡기 위해 길을 걸으면서 다시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성으로서 그레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욕정의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D 215)을 느끼면서도 “손톱으로 손바닥을 꼭 누르면서”(D 215) 그 욕정을 다스린다. 그러나 호텔로 들어온 후 그 노래가 가져다 준 옛 애인이었던 마이클 퓨리와 추억으로 괴로워하는 그레타를 보며 분노하게 된다.

게이브리엘의 권위는 이제 이 이야기의 말미에서, 그가 “아내의 생소한 기분을 정복하고 싶어”(D 217)할 때 최종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남성성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낭만적인 밤을 꿈꾸던 게이브리엘은 그 대신에 자신의 아내를 위해 “용감한 죽음”(D 222)을 택했을 마이클 퓨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게 된다. 아내의 어린 시절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와 성적인 접촉에 대한 거부 충격 받은 그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을 아내에게 토해내고 그의 몸으로 그녀의 몸을 짓밟아서 그녀를 정복”(D 217)하고 싶어 한다.

게이브리엘은 빈정대는 자기 말은 먹히지도 않은 채 이 인물, 가스 공장에나 다녔다는 소년이 망자의 세계에서 아내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게 창피스러웠다. 자신이 둘이서만 함께 보낸 내밀한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흠뻑 젖어 있고, 애뜻함과 기쁨과 욕망으로 부풀어 있는 동안,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사람됨에 대한 부끄러운 자의식이 엄습해 왔다. 자신이 이모들에게 톨마니 노릇이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속물들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자신의 얼토당토않은 욕정을 그럴싸한 것으로 치부하며 안절부절 못한 채 호의나 베풀려고 드는 감상주의자로, 그리고 거울 속으로 흘깃 본 처량하고 한심한 작자로 스스로의 눈에 비쳐졌다. 수치심으로 별걸게 달아오른 이마를 아내가 볼까 봐 게이브리엘은 본능적으로 빛을 더욱 등졌다. (D 219-20)

아내의 과거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단편에서 게이브리엘에게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말대꾸로서 “이제 막 승기를 잡나 보다 싶은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보복적인 존재가 아득한 저쪽 세계에서 게이브리엘에게 대항할 세력을 규합하여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D 220)을 준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 그러했듯이 게이브리엘은 이번에도 “아내의 슬픔에 끼어드는 것이 무안해서 슬그머니 손을 놓고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D 221-22).

이 마지막 공격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게이브리엘이 그 공격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과 그날 파티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레타의 남편으로 살아왔던 과거까지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마침내는 머지않아 있게 될 이모의 죽음에 대한 상념과 함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자의식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이브리엘은 그렇그렇 고이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고, 이 망자들이 한때 세우고 살았던 단단한 이승 자체가 용해되어 줄어드는 것”(D 223)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위로 아일랜드 전역에 내리는 눈이 “삼라만상 사이로 아스라이, 그리고 모두에게 최후의 종말이 내린 듯, 모든 생자와 망자 위에 아스라이”(D 223-24) 내린다. 결국 그레타의 고백은 게이브리엘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초라한 특권의 안정감을 뒤흔들게 되고, 이러한 안정감의 궤멸은 제국주의가 마련해 준 사상누각 위에서 초라하게 그 명맥을 유지해 왔던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이스의 “조국의 도덕사”에 등장하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게이브리얼은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말을 찾을 때마다 그저 “썩듯맞고 쓸데없는 말”(D 223)만 찾게 된다. 졸린 눈으로 수면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그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서쪽으로의 여행을 떠나야할 시간이 되었다”(D 223)는 생각은, 진질머리가 나는 자신의 조국의 영토가 아닌 대륙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던 게이브리얼의 의식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암시는 그의 눈에 “그렇그렇 고이는 눈물”(D 223)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찬탈자와 찬탈 당한 자 모두 위에 동등하게 차별 없이”(Cheng 147) 내리며, “모든 것의 종말로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허위의식으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자유로의 해방”(Parrinder 272)을 상징하는 최종적인 에피포니로서 작용하는 눈과 더불어, 비록 사상누각과도 같은 식민지 지식인의 위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의지적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무시해왔던 타자들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며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해체를 인정하는 게이브리얼의 자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IV. 결론

모컨 자매가 주최하는 연례 파티의 가장 밑바닥에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관리인의 딸 릴리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 「망자」는 ‘아일랜드 특유의 환대의 정신’을 기저로 하는 잔치의 주제와는 달리 그러한 환대의 주체를 빌미로 자신들의 문화적 허장성세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지배세력과 그러한 세력에 대한 격렬한 공격, 그리고 그에 대한 주체 세력의 어정쩡한 반응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주체와 자아의 붕괴 과정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각종 다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어적 소음들과 주로 음악으로 표현되는 예술적 소음 그리고 훔달리는 눈발 같은 무질서의 예술적 형상화 등을 통하여 작가가 조이스의 모더니즘적인 미래 작품들인 『율리시스』와 『피네건의 경야』 같은 텍스트 속에 구현된다”(Chambers 117)고 인식되고 있는 이 단편은 그 모든 예술적 요소들의 일종의 경연장과도 같은 ‘카니발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게이브리얼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의 인식, 그리고 파티에서의 행동들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 작품에서 파티의 역할은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며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유분방하고 소란스러운 파티의 속성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언어와 문학과 예술, 역사 그리고 음악 등에 대한 견해 등이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인은 하녀에게, 친영과의 성향은 민족주의의 성향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삶은 죽음에게 그리고, 그 파티에서 가장 강조되는 전통의 개념은 변함없는 반복성에 대한 회화화에 의하여 끊임없는 말대꾸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파티라는 집단적인 양상이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통한 개인적 양상에 공격을 받는다. 그것은 파티라는 집단적 행사가 끝난 후 주인공이 혼자 남게 되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게이브리엘이라는 인물은 다시 그 모든 공격의 총체적인 대상이 되어 어찌 보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셈이 된다.

아마도 게이브리엘에게 가해진 공격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내 그레타의 첫사랑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살아 있을 때도, 고작 가스공장의 직원에 불과했던 그가 죽은 후에도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의 결혼 생활 기간 전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그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던 사랑의 부채를 깨닫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지닌 말대꾸들에 의한 격렬한 공격으로 점철되어 있는 「망자」의 파티는 공식적 질서와 비공식적 질서가 한 마당에 뒤섞여 ‘유쾌한 상대성’을 이루는 바흐첸의 카니발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파티는 오랜 역사의 뒤편에서 억압되어 왔던 타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은 주체의 목소리를 전복함으로써, 그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억압해 왔던 타자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소리 없이 내리는 눈 속에서 자아와 타자의 대등한 공존이 추구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인용문헌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Bakhtin의 문학기론』. 문학과 지성사, 1991.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2001.
- 조이스, 제임스.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역. 서울: 민음사, 2012.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Ed. Holquist, Michael Holquist. Trans. Emerson, Caryl and Holquist, Michael. Austin: U of Texas P, 1981. Abbreviated as *DI*.
- _____.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1963). Trans. Caryl Emers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4. Abbreviated as *PDP*.
- _____. *Rabelais and His World*(1965). Trans. Hellen Iswolsky, 2nd ed. Indiana: Indiana UP, 1984. Abbreviated as *RHW*.
- _____.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Ed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Trans. McGee, Vern W. Austin: U of Texas P, 1986.
- _____.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Eds. Michael Holquist and Vadim Liapunov. Trans. Vadim Liapunov. Austin: U of Texas P, 1990.
- Barolsky, Paul. "Gretta's Name." *James Joyce Quarterly* 28.2 (Winter 1991): 519-20.
- Bloom, Harold, e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ames Joyce's Dubliner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 _____, ed. *Modern Critical Views: James Joy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Bowen, Zack and James F. Carens ed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 Chambers, Ross. "Gabriel Conroy Sings for His Supper, or Love Refused ("The Dea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ames Joyce's Dubliner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97-119.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Eggers, Tilly. "What Is a Woman... a Symbol Of?"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ames Joyce's Dubliner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 Publishers, 1988. 23-38.
- Feshbach, Sidney and William Herman. "The History of Joyce Criticism and Scholarship."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n and James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727-80.
- Frawley, Oona, ed.,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Dublin: Lilliput Press, 2004.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Abbreviated as *D*.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Anderson, Chester G.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Abbreviated as *P*.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5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Vintage, 1986. Abbreviated as *U*.
- Parrinder, Patrick. "Dubliners." *Modern Critical Views: James Joyc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245-73.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Winston, Greg C. "Militarism and 'The Dead'."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Lilliput Press, 2004. 122-32.

Abstract

The Aspect of the Party in “The Dead” and Its Implications
—Centering on Mikhail Bakhtin’s “Carnival”

Cheol-soo Kim

This paper aims to read “The Dead,” the last story of James Joyce’s *Dubliners*, in the light of Mikhail Bakhtin’s concept of ‘Carnival,’ and to trace the process in which the protagonist Gabriel Conroy experiences the collapse of his egocentric identity and then spiritual awareness during the annual party held in his aunts’ home. The story is defined by a series of verbal actions and reactions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reminding the reader of the concept ‘Carnival,’ in which the upper class is subverted by the lower class with the result of ‘gay relativity.’

In a very regular, hostile and pleasant party hosted by the Morkan sisters, Gabriel’s aunts, the masters and mistresses are rebutted by a house maid, the pro-British attitude by the Irish nationalist attitude, male by female, the living by the dead, and the concept of tradition, which Gabriel most emphasizes in his speech, by the caricature of its perennial repetitions. The group aspects of the party are also challenged by the personal aspects of the central character, who becomes continuously skeptical of his identity.

Among the retorts rattling throughout the procession of the party, the love story of Gretta, Gabriel’s wife, whose lover died long ago at the age of seventeen confessing his love to her in heavy rain, is most crucial to the collapse of his identity. It forces him to reflect on his marriage life as a whole and recognize the lack of ‘true love’ as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ataclysm of his identity.

In brief, the diverse conditions of the party in the story of “The Dead” represent attributes of Bakhtin’s ‘Carnival,’ enabling the voices of the other, which have been thus far oppressed in the shades of history, to retrieve their power to subvert the

relatively weakened voices of the self, reconsider their conscious or unconscious oppression of the other, and create a New World with the snow falling faintly up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

■ Key words : James Joyce, “The Dead,” identity, Mikhail Bakhtin, Carnival, subversion, self, other
(제임스 조이스, 「망자」, 정체성, 미하일 바흐친, 카니발, 전복, 자아, 타자)

논문접수: 2014년 10월 27일

논문심사: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4년 12월 11일